

## 류젠지 갯도

류젠지 갯도는 크고 작은 갯도가 900 개 이상이나 발견된 이와미 은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갯도 중 하나입니다. 이와미 은광 내에서 은 산출량 상위 5 위로 꼽히는 이 류젠지 갯도의 총 길이는 600m 로, 초반의 273m 는 현재도 일년 내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1715 년에 만들어진 이 갯도는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가 임명한 현지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의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젠지 갯도에서 채굴된 은은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직접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은광 내부에는 메인 갯도에서 갈라지는 여러 개의 작은 갯도가 존재합니다. 이들 갯도는 광산의 은 광맥에 도달하기 위해 파내진 것으로 그 흔적은 벽 곳곳에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갯도는 메인 통로보다는 훨씬 좁지만 근대적인 굴착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전형적인 너비입니다. 끝과 쇠파이프만을 사용해 갯도를 파내려가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비는 광부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메인 통로는 짐수레가 드나들 수 있도록 19 세기 후반에 확장한 것입니다.

출구로 이어지는 터널은 은광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1989 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 부임한 막부의 관리에게 은광의 기능을 설명할 목적으로 사용된 ‘이와미 은광 두루마리 그림’ 속의 그림을 재현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